



2011-11

남미대륙 활동 보고서

SOUTH AMERICA MONTHLY REPORT

SOUTH AMERICA HQ



도미니카 공화국

Dominican Republic



학교 건물 Building of Escuela Paraguay in Santo Domingo



교장, Lic. Yris Night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공적인 활동보고 -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60시간 공공 서비스와 교육

도미니카 공화국 교육 시스템은 졸업생에게 60시간 공공 서비스와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학교에 순결교육을 했었고, 특별히 그 기간에 지속적으로 고등학생들을 새 평화대사로 임명했다.

Liceo Paraguay의 교장 Mrs.Yrissms는 원리공부에 관심을 갖고 곧바로 평화대사가 되었다. 또한 7일 원리세미나에 참여했다. 그녀는 원리의 가르침의 위대한 힘을 이해하고 시작하여 우리를 학교에 초대하여 순결교육 및 인성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우리가 41명의 고등학생에게 60시간의 공공서비스와 교육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우리는 순결교육, 인성교육, 7일 세미나와 같은 원리강론 교육, 공공서비스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1명의 학생들이 일주일의 3번 우리의 본부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

긍정적인 점은 교장이 이미 이 프로젝트를 다른 학교의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모델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 동일한 수준의 타학교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한가지, 이 교육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필요한 적합한 교육이다.

또한 우리는 이 60시간 교육 과정을 통해 국가정부에 승인을 받아 좀 더 확실한 도덕적 가족 가치관 교육의 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의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2011년 12월까지 이 목표를 이룰 것이다. 타학교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학생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15세~19세 시기의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



Beginning of the teaching for the second group by mr. bernardo cruz lecturer of family federation -Pure Love Conference

- 1) Students Impressions
- 2) Mr. Regalado explains the program to some parents

60 Hours of Public Service and Training for High School Graduating Students

In the Dominican Republic Educational system, students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re required to do 60 hours of public service and teaching. So, we have been teaching pure love conference to many schools, especially to high school students at the same times, we have been constantly appointing new ambassadors for peace.

Mrs. Yris Night is the principal of “Liceo Paraguay”. She became an ambassador for peace and immediately was interested to study Divine Principle. She participated in a sequence of seminars equivalent to a 7 days Divine Principle workshop. She understood the great power of this teaching and invited us to her school to start with pure love and character education conferences.

Now she decided to empower us (Family Federation) to teach the 60 hours of Public Service and Training to 41 students from high school, which means we could decide the content of the 60 hours training. We did a program which includes: Pure Love Conference, Character Education conferences, full Divine Principle conferences like a 7 days seminar, Public services and cultural activities. Those 41 students are coming 3 times a week to our national headquarter to receive this teachings and training.

The positive point is that she is already sharing this project with others school directors, so we are trying to make a “Model Project” of this school and then share it with many others contacted directors at the same level. Another good point is that those students are in a much appropriated age to receive this teaching because they will enter the university after graduating of high school. Also we should approve their 60 hours requirement through a certification which means national government should recognize family federation as qualified moral values education institution which can help to restore family moral values.

We plan to finish this program by December 2011. Others school are already requesting us to do this program for them. Because students are between 15 to 19 years old, they really need this education in order to be better human beings.



페루

Peru



1) 참가정 가치 교육

- Pucallpa, Ucayali

Pucallpa, ucayali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참가정 가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정, 학교, 도시의 공무원 및 근로자 조직뿐만 아니라 기관의 임원 및 관리자에게 참부모님 자서전을 전달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19일부터 29일까지 자서전을 전달했다.

1) TRUE FAMILY VALUES

Education program

- PUCALLPA, UCAYALI

We hold the education program 'True family values' for mothers of families, schools.

And We given the biography of True parent to City of pucallpa officers and managers, officials and workers of "pacha" organization. We given the biography to more than 100 people.

2) 페루 UPF 다양한 종교 간의 '결혼과 가족' 포럼 개최

페루 UPF는 다양한 종교 간의 '결혼과 가족' 포럼을 개최했다. 목사 트레버 존스는 페루 리마에서 다른 신앙 단체를 방문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11월 18일 결혼과 가족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참여 패널은 카톨릭, 이슬람, 크리슈나 전통 의식의 대표들이다. 저녁 프로그램은 최근 국내 및 국제적 UPF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UPF 관점에서의 결혼과 가족에 대해 소개하였다.

각 패널들은 자신의 신앙관점을 소개하며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포럼을 진행하였다. 주요 종교들 사이의 주요하고 명확한 공통의 의견은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이러한 가정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 UPF Peru holds Interfaith Forum on Marriage and Family.

Following on from a series of visits to other faith communities Rev. Dr. Trevor Jones hosted a forum on Marriage and family on November 18th, 2011 in Lima, Peru.

The Panel included representatives from Catholic, Muslim and Krishna Consciousness traditions. The evening program opened with a review of recent UPF activities on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Following this short introduction by Dr. Jones the UPF view on Marriage and Family was presented by Rev. Alberto Florido; President of HSA Peru, using the PowerPoint entitled the Family as the School of Love and Peace. Each member of the panel presented their own faiths view and the meeting was then opened to the audience for questions. It was clear from the speakers' remarks that there is a strong common opinion amongst the major religions supporting the view that the family unit is the basic building block of society which needs to be protected and strengthened.





에콰도르

Ecuador



한국어 교실 기초반 Korean language Basic class



한국어 교실 중급반 Korean language Middle class

1) 한국어 수업 새로운 학기가 9월에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2개의 클래스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하고 있다.

중급 클래스는 타츠야 야마니시씨 담당, 초급 클래스는 아츠코 스즈키씨가 담당하여 가르친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한국 대사관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한국어 수업을 공지했다. 다른 도시에 있는 한국어에 관심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수업에 대해 문의해왔다.

이 클래스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통일교 식구, 평화대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 평화대사는 목사 Castulo Leiton씨, 2년전 수업을 신청했다. 그는 한국어가 자신에게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꿈은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을 한국어로 읽는 것이다. 한국어는 메시아의 언어이기 때문에 원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2004년 원리를 알기 전까지 개신교 교회의 목사로서 오랜 기간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는 원리강론을 특별하게 성경내용과 연관하여 자세히 공부했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이 점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해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두번째로 오신 예수 문선명 선생님이 참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현재 타종교 위원회장과 에콰도르 UPF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아벨 분봉왕으로부터 한국어로 된 평화신경 사본을 받았다.

한국어의 습득은 우리의 소망이자 각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참부모님의 소원이다. 수업 할 때는 항상 성가를 부르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몇몇 참가자들은 통일교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한다. 수고한 교사들과 참가자들에게 감사한다.

1) New term of Korean Language Lesson has started in September. We have been holding two classes on every third Saturday's afternoon since two years ago. Mr. Tatsuya Yamanishi is a teacher of middle class and Mrs. Atsuko Suzuki is a teacher of basic one. The number of student of these lessons is gradually increasing.

Because, the Embassy of Korea in Ecuador noticed our class of Korean Language throughout our member's "Face book" and the Embassy put our notice on the "Face book" of Embassy in order to inform about our class to people. Young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of other cities also asked us about our classes.

The students of these classes are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high-school students, Ambassadors for Peace and members of Tongilgyo. One of Ambassadors for Peace, Pastor. Castulo Leiton who has been assisting the class since two years ago said, "It's very difficult for me. But I have what dream I can read the word of Rev. Moon in Korean language. Because it is Messiah's word. I must to read it in original language directly."

He's a pastor of Protestant Church, had been seeking the true significant of crucifixion of Jesus for long time until he met Divine Principle in 2004, in Quito. He has been studying DP in detail, specially the contents relative to the Bible. He had a big shock about what Crucifixion of Jesus is not the original plan of God. Because he also had been having a doubt about this point and seeking more reasonable answer in spite of his faith for Jesus. Therefore he has a strong conviction which Second coming of Jesus is Rev. Moon, True Father.

Now he is a leader of Interreligious commission and Coordinate Director of UPF-Ecuador.

He also received the copy of “ Pyong Hwa Shin Gyeong” in Korean from Abel Boon Bong Wang before. Mastering of Korean language is a big aim of each of us and a desire of True Parents for all of us. The class always starts with the session of Holy Song of Tongilgyo. And we want to introduce the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roughout these classes. Also some of new participants want to know the teaching of Tongilgyo. Thanks for the effort and dedication of two teachers and all participants.

2) 에콰도르 UPF 결혼과 가족, 평화를 위한 결의대회

UPF 에콰도르는 결혼과 가족, 평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10월 22일, 11월 12일에 평화대사관 Quito에서 개최하였다. 사람들에게 UPF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결혼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대사들을 초대하여 평화와 문화의 대사로서 UPF의 비전을 공유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회에 평화대사에게 Luis씨, Jorge씨, 통일교 식구, 가족재단의 강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회의를 했다. 회의 당시, 많은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의 주제를 놓고 회의하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가 모든 주제를 다루기 위해 적어도 삼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참가자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참가자들은 평화의 문화에 기반하여 모든 가족구성원과 젊은이들이 가족의 조화로운 관계 확립을 위해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만족했다.

* 참가자의 소감 : 이 대회에 처음 참가했다. 나는 이 대회를 통해 정말 많은 가치와 느낌을 받았으며,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을 UPF 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Mrs. Lupe Castelo

2) UPF-Ecuador The Conference of Marriage and Family, initiative for peace

UPF-Ecuador held the conference of marriage and family on October 22 and November 12 at Peace Embassy in Quito. The deep understanding about the value of family and marriage is indispensable condition for Ambassador for Peace in order to share the vision of UPF to people. So, we invited our Ambassadors for Peace at this occasion to be capable of sharing UPF's vision, as multiplier of culture of peace.

In this occasion, Mr. Luis Quizphi and Mr. Jorge Silva, Lectures of Family Foundation and members of Tongilgyo, gave the conference of Marriage and Family to Ambassadors for Peace. At the time of round table, many opinions came out. So they needed more time to discuss each theme. One of participant said that to cover all these themes, we need at least three days. But all participants express the satisfaction of these themes which are able to guide all family members and young people in order to establish harmonious relationship in the family, which is a base of culture of peace.

*** Participants Testimonials :** I participated in this event first time. I want to know more details of this event which has very much value and feeling and I think this should be transferred to all people of nation who don't know the plan of God throughout your organization (UPF). - Mrs. Lupe Castelo



UPF-Ecuador The Conference of Marriage and Family, initiative for peace

Ambassadors for Peace and their guests



우루과이

Uruguay



1) 평화를 위한 봉사 " 우리의 꿈" Nov. 25 Service for peace "Our dream"

"우리의 꿈"이라는 주제로 건물의 외벽을 아름답게 꾸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세를 중심으로 11명이 참가했다. 새롭게 꾸민 건물은 평화대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We held projects of "Our dream". That project is newly, beautifully decorating the outer wall of the building. Junior member 11people attended. The building is peace ambassador operate facilities of the government support. (provide meals to difficult children.)



국제 해양훈련 프로그램 - 내셔널 가든, Puerto del buceo 우루과이

Nov. 28, International Ocean Challenge Training Program. – National Garden, Puerto del Buceo



2) 아르헨티나 청년교육과정 1년 코스를 밟고 있는 청년 4명과 순결순회사 1명, 우루과이에서 6명 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1주일간의 국제 해양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제까지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해양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운전 기술 및 안전 교육을 받고 해양훈련을 하였다.

We held international ocean challenge training program. Argentina youth education process 1year member 4 people, pure love missionary, Uruguay member 6 people, total 11people attended. We started First international ocean training programs. (So far the program was targeted at the domestic.) The Program contents is driving skills, safety education, ocean training.



아이티

Haiti



1) 3Days Divine Principle Seminar in Kaliko Beach Hotel

2011년 11월 4일~6일까지 VIP를 위한 원리 세미나가 Kaliko 해변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세미나의 목적은 시장, 교육 전 장관, 변호사, 목사 등 VIP인사들이 원리에 대해 깊은 교육을 받는 것이다. 총 15명의 VIP가 참석했다.

We had 3days Divine Principle Seminar for VIPs in Kaliko Beach Hotel on Nov. 4-6, 2011.

* The Purpose of Seminar : Education of deeply Divine Principle for VIPs The main participant of the seminar was Mayor,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Lawyer, Pastor etc. * Participant : 15 people.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토론
Discussion about the salvation of the cross of Jesus



브라질

Brazil



1) 종교간의 포럼 UNILUX Interfaith Forum at the Unification Church Temple

우리는 2002년부터 종교간의 대화 이벤트-UNILUX 종교간의 포럼을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UPF와 FFWPU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제 17회 종교간의 포럼은 종교와 세계평화를 주제로 11월 27일 상파울로에 있는 통일교회 성전에서 열렸다.

첫번째 발표는 이슬람 청년 세계협회의 브라질 국가연합 윤리위원회 회장인 Mr. sheikh jihad가 이슬람의 전통에 대해 발표하였고, 두번째는 신문사 'Umbanda sagrada'의 사장이자 움반다 신학대 교수, 상파울로 AUEESP 단체의 이사인 Mr.Alexandre cumino가 움반다 전통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종교는 103년 전에 브라질에서 시작한 종교이다.

잠깐의 휴식시간에는 집시그룹인 'Oracle do sol'이 아름답고 다채로운 댄스를 선보였다. 세번째는 UNILUX 공동설립자이자, 강사, 심리학자, 치료사, 라디오와 TV강사인 Mr. Adão가 심령술(정령송배)의 전통에 대해 발표하였다. 점심식사는 Hare krishna 단체에서 준비하고 제공한 채식 식단이였다.

네번째 발표는 교회의 역사와 예배 전공교수이자 신학자, 상파울루 주교의 목사 아프리카 후손의 회원인 Mr. Guilherme Botelho Junior가 로마 카톨릭 전통에 대해 발표했고, 다섯번째는 파울리스타 이스라엘 신도협회의 회원이자 이스라엘 성년식 전공교수, 예루살렘의 헤브라이인 대학을 첫 브라질 랍비로 졸업한 랍비 Michel이 유대교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여섯번째 발표는 종교자유와 시민권 협회 회장이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목사이자 교수인 Mr.samuel Gomes de Lima가 개신교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교 교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무대로 초청되어 토론을 하였다. (움반다 상파울로 국가조직의 회장, 통일교 FFWPU 브라질 협회장, 카톨릭 교회의 주교, 힌두교를 대표하는 헤어 크리슈나 운동단체, 교수, 개신교 대표자, 불교 대표자, 신령교의 대표자, 이슬람의 대표자 등) 진행자인 Mr. Sidnei는 종교 화합과 이익을 위한 서면 질문만을 할 수 있고, 논쟁이나 비판 또는 종교 담당자에게 불쾌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성전에 처음 온 많은 참가자들이 질문한 첫번째 질문은 성전 벽에 있는 거대한 황금 통일 마크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협회장 Mr.ferabolli는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간략히 통일원리에 대해 소개하고 마크의 의미를 소개하였다.

모두가 답을 듣고 싶어했던 다음 질문은 2012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와 폭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가정과 평화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였다.

각 참가자들은 상호간의 풍요롭고 재미있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서 가치있는 내용을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Mr. Feralbolli는 이 세미나는 내 인생 최고의 종교 세미나였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간증했으며 많은 참가자들은 모두가 한 장소에서 저명한 연설자들을 통해 서로의 종교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기쁨을 느꼈다. 또한 장벽과 선입견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모든 종교간의 화합을 구축할 수 있었다.

통일교 브라질 협회장은 종교간의 포럼을 통해 각 종교지도자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일원리 책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The UNILUX interfaith group has been realizing interfaith dialogue events since 2002 and recently made a partnership with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nd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The 17th interfaith Forum took place at the Unification Temple in Sao Paulo, on Sunday November 27 with the theme Religion and World Peace.

Sheikh Jihad Hassan Hammadesh, president of the Council of Ethics for the National Union of the Islamic organizations in Brazil and the World Association of Muslim Youth in Latin America (WAMY), represented the Islamic tradition for the first presentation.

Mr Alexandre Cumino, director of the newspaper “Umbanda Sagrada”, professor of Umbanda theology and director of the Spiritualist and Umbandista Association in the State of Sao Paulo (AUEESP) gave the second presentation, representing the Umbanda tradition, a religion that started in Brazil, 103 years ago.

After a short break the gypsy group “Oracle do Sol” performed beautiful and colorful dances.

Mr. Adão Nonato de Oliveira, co-founder of the UNILUX, lecturer, psychologist, therapist, radio and TV speaker, represented the tradition Spiritism for the third presentation. A religion that spread in Brazil based on the teaching of Allan Kardec, ou Hippolyte Léon Denizard Rivail, originally from France. For lunch, a vegetarian meal was prepared, delivered and served by the Hare Krishna group.

Mr. Guilherme Botelho Junior, theologian, professor of the Church history and liturgy, member of the Afro descendant Pastoral of the Sao Paulo Archdiocese, represented the Roman Catholic tradition for the fourth presentation.

Rabbi Michel Schlesinger member of the Board of the Paulista Israelite Congregation (CIP), professor of Bar Mitzvah, first Brazilian rabbi graduated from the Hebraic University of Jerusalem, represented Judaism for the fifth presentation.

Mr. Samuel Gomes de Lima, president of the Brazilian Association for the Religious Freedom and Citizenship (ABLIRC), professor and pastor of the Seven Day Adventist Church, represented Protestantism for the sixth presentation.

Mr. Sidnei invited the following religious leaders representing a religious denomination to come up on the stage for the forum of debates: Mr. More Ventura representing Judaism; Mrs. Monica from the Sukyo Maharikari; Mr. Guilherme Botelho from the Roman Catholic Church; Mr. Juberli Varela, Presidente of the Umbanda Organization of the State of Sao Paulo (SOUESP); **Mr. Simao Feraboli, president of FFWPU in Brazil representing Unificationism;** Bishop Marcelo Resende from the Liberal Catholic Church; Father Ney Oliveira from the Vetero Catholic Church; Mahesvara Caithanya from the Hare Krishna Movement representing Hinduism; Professor Valdemar Setzer from the Anthroposophy; Pastor Samuel Lima representing Protestantism; Mr. Luis Gomes from the Seicho No Ie; Mr. Kazuya Nagashima from the Risho Kosei Kai representing Buddhism together his interpret; Mr. Adao Nonato from the Spiritism; Sheik Armando representing Islamism e Professor Alexandre Cumino from Umbanda.

Mr. Sidnei explained that he will accept only written questions and he will select only the topics that will benefit for the religious harmony and avoid controversial or critical question that may offend a religious representative. The first question that many guests were asking since they came for the first time in the temple was: What is the meaning of the huge golden Unification symbol which is on the back wall? That question was directly addressed to Mr. Ferabolli who was pleased to explain the signification of the Tong Il mark logo and briefly mentioned the Divine Principle explanation.

The next following questions for everyone who wished to answer were: What will happen in 2012?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sin and violence? What is relation between family and peace?

Each representative gave his view on the topics, presenting diverse viewpoints mutually enriching and interesting, each participant felt inspired learning valuable content from each other. Mr. Ferabolli commented: It was the best Seminar on religions that ever participated in my life! The atmosphere was very good!

Many participants felt delighted that they could learn and understand about each other religions from eminent speakers all in one place. We could feel the barriers and preconceptions breaking down and it is possible to build harmony between all religions. Mr. Ferabolli was so inspired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ligious leaders in this interfaith forum in the Unification temple that he decided to offer to each representative a copy of the Divine Principle book that everyone received with gratitude.



집시 그룹 공연 The gypsy group "Oracle do Sol"

2) 1세 축복 준비 세미나 - 브라질 협회 및 여성연합, 가정국 주최

THE BLESSING PREPARATION SEMINAR FOR 1ST GENERATION – November 19- 20, 2011, FFWPU, headquarters, São Paulo.

이미 결혼을 한 4쌍의 부부를 포함하여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축복을 위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가정국장 Mrs. Ivonete의 개회를 시작으로 브라질 협회장 Mr. Ferabolli의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 강의를 하였다.

점심을 먹은 후, 부협회장 Mr.Carlos의 혈통전화, 축복의 의미와 가치, 과정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그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점들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협회장 사모인 Mrs.Ezzat의 경험의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 그 다음날, 모두 혼독회에 참석하고 협회장의 '포르노의 폐해' 교육을 받았다. 그 후 예배에 참석하고 원리강론 시험을 보았다.

오후에는 순결순회사 김효미씨의 순결의 가치 강의를 있었고, 가정국장의 1세 매칭의 과정에 대한 교육, Rev. Christian의 온라인 매칭 시스템 설명이 있었다. 협회장의 폐회선언과 함께 모든 참가자들은 세미나 수료증을 받았다.

The seminar started at 8:30 AM on Saturday with 26 participants, including 4 previously married couples. Mrs. Ivonete Dourado, BFD Director gave the opening remarks, followed by the lectures of Mr. Simão Ferabolli, FFWPU President of Brazil, the lectures were the Principle of Creation, the Fall of Man and the Principles of Restoration.

After lunch, the vice president of FFWPU, Mr. Carlos Irlan Rocha gave the lectures about the “Change of Blood Lineage”,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Blessing and the Process of the Blessing”, after that, there was a time for questions and answers in order to clarify some doubts.

In the evening, Mr. Simão Feraboli and his wife Mrs. Ezzat Feraboli gave the wonderful testimony about their experiences when they went to the blessing and the day ended with the evening prayer.

The next day all participated in the HDH and then the lecture about the Harms of Pornography was given by Mr. Feraboli. After the lecture all took breakfast then prepared for the Sunday Service. Then there was the test of the Divine Principle before all participants took their lunch.

In the afternoon, Mrs. Hyo Mi Linhares, a Pure Love Missionary gave the profound lecture about the Value of Purity. Mrs. Ivonete Dourado gave the lecture of the Process of the Matching for the 1st generation and Rev. Christian Lepelletier, one of the Matching Advisors gave the explanation about the Online Matching System.

The Closing Remarks was given by Mr. Feraboli and all participants received the Certificates of Participation of the seminar.



